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1선교구  
총력 전도의 달

10월 22일(목) 새가족 초청 가을초청  
10월 30일(주일) 총력전도주일

2선교구  
총력전도 프로젝트

교회사랑 112  
1 하루에  
1 한번  
2 이웃에게 우리교회 자랑하기

일일기도회  
일시/장소 10월 12일(수), 광림수도원

다니엘기도회  
일시/장소 13일 / 19일 / 20일 / 26일 / 27일  
오전 11시, 교육관 2층

1개속회에서 1명전도  
4선교구 전도목표 199명

V.I.P를 위한  
총력전도주일  
광림의 중심 5선교구  
2022. 10. 30. 주일

- 속회별 전도대상자 1명 선정
- 다니엘 기도회, 속회, 일일기도회로 먼저 초청
- 교회버스를 전국방 알차게 활용
- 전도팀이 중점하지 못한 이 다시 초청

초대합니다  
2022.10.30 (주일)  
예배: 오전 7, 9, 11시  
광림교회

- 영유아유치아동 달린트 잔치 (오전 9시 예배 후)
- 아동6종동부 분식 대잔치 (오전 10시 예배 후)
- 꽃꽂이 연대이 클래스 (오전 2시~4시 (1시간 진행) 대상: 교역원-종교당부 및 준비 비용 10,000원)
- 사랑의 연일 (오전 8시~오후 4시 - 광림교회 및 "연일버스")

6선교구  
10월 총력전도

가서 복음 전하라!  
11월 총 새가족 초청 가을초청  
05 새가족 초청 가을초청  
04 전도한 선물증정  
03 새가족을 위한 유자탕 만들기 선물 전도우수속회 시상  
02 노방전도 16교구 순회상가 17교구 일일예배 18교구 불지대전문  
01 다니엘기도회가짐

열매를 거두는  
3선교구

교구별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 다니엘 기도회: 교구별 정해진 가정에서 기도 후 전도  
• 선교구 기도회: '생명을 살리는 중보기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비전랜드  
• 총력전도주일: 10월 30일(주일)

8선교구 총력전도주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10월 30일(주일)

2022 유가γγελιον FESTIVAL

- 28일 유가γγελιον 교복교
- 98일 유가γγελιον 교복교
- 108일 선교인 가을운동회 with TenTen
- 168일 전문직 선교사 초청 전도간담회
- 238일 소경인 목회 초청 전담간담회
- 308일 가을 음악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이혼아름 마리아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라(마 18:13)

광림서교회

7선교구  
10월 총력전도

총력전도를 위한  
7선교구 일일기도회  
& 새가족 동행축제  
10/28(금) 연대이.세이머스

REBUILD  
RESTORE  
VIVE

9선교구 총력전도주일 10월 30일  
한 영혼을 생명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광림교회 9선교구 전도계획

- 다니엘 기도회
- 안도의 피리를 울고 곡을 치라!
- 지방전도
- 25교구-곡교(비인포)를 교육하여, 26교구-계제지킴, 27교구-영애제지킴
- 포도나무 순회전도
- 순회전도 걸음은 전도대포팀과 전도대상자를 함께 기도합니다!

10선교구 화이팅! 총력전도 화이팅!

지금복음을  
배송합니다!

STEP 01 총력전도를 위한 10선교구 연합속회 기도회 10월 15일(금) 오전 11시 광림교회 교육관 2층 예배실

STEP 02 온라인 송편을 위한 트러트 후 9월 25일 안스타그램 계정운영(Memo) 교구별 대.대.대.대회 9월 27일(일)을 위한 신안 이모션(간담회 순회)

STEP 03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도지도를 위한 전도연합회 지역 특색 반영을 위한 설교.55with 미션선교교회 선물

STEP 04 10/30(주일) 총력전도주일 초청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10월 총력전도의 달을 맞은 광림교회 성도들은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모이기 힘든 시간을 넘어 이제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다.  
각 선교구에서는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전도

## “너희들은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 10월 <총력전도의 달> 각 선교구 전도 계획과 비전

축제에 씨 뿌리는 자의 열심으로 담대한 전도 계획과 비전을 전했다.

1선교구 전도의 동력은 기도라는 믿음으로 광림수도원 일일기도회,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200명의 전도 열매를 맺고자 한다. 노방전도, 관계전도와 10월 22일 '새가족과 함께 걷는 남산간기대회'로 새가족들을 초대해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2선교구 '교회사랑운동 112'를 통해 전도대상자들에게 광림교회와 믿음생활에 대하여 하루에, 한 번, 이웃에게 우리교회 자랑하기

를 하며, 무료 나눔 플랫폼을 활용한 '나눔 전도를 하고 있다.  
광림수도원 일일기도회와 다니엘기도회로 하나 되어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다.

3선교구 관계전도는 성도들이 한 명 이상을 정해 교회에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노방전도는 유가γγελιον 교육을 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전도지와 전도 용품을 전하고 있다.  
다니엘 기도회와 10월 20일 광림비전랜드에서 선교구 연합기도회를 진행한다.

4선교구 <한 속회에서 한 명씩 전도>라는

전도목표로 199명으로 정했다.  
선교구 지역을 운행하는 교회버스 시간을 기입한 전도지를 특별 제작하여 '교회버스 가득 채우기 운동'과 10년 이내 교회에 다녀가신 성도님들을 다시 초청하는 '다시 전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5선교구 VIP카드와 초청장을 만들어 관계전도를 실시한다.  
1차 목회자 만남, 2차 선교구 전체모임 초대 및 관계형성, 3차 주일예배에 초청하여 새신자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 다니엘기도회와 거점전도(봉천·범계·과천·양재역)도 하고 있다.

-> 3면에 계속

# 잃지 말아야 할 정체성

“...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마태복음 26장 56절)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Rollo May)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에서 현대인의 가장 크고 무서운 병은 '불안과 공포'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유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정체성을 상실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롯 유다가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열두 사도 중 한 명이었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그를 도둑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매사에 감정이 불안하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목을 매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가롯 유다의 비참한 인생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친구로 인정해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롯 유다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한 미래가 비극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 첫째,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본문은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지, 어떤 것이 더 강한지, 모든 것에 저울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나 신념이 아니라 힘과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쉽게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따른 이유는 구원이나 영생 그리고 천국이 아니라,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자 온 30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의 저울에는 예수님과 권력, 재물 등 올라가 있는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예수를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가롯 유다는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주인이 아니라 좋은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가롯 유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저울 위에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빼고 다른 것들만으로 가득 올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입니까? 나의 주인이 곧 나의 정체성입니다.



### 마태복음 26장 47~56절

47.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8.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아니면 그를 잡으라 한지라 49.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춘다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51. 예수와 함께 있던 자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52.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

겠느냐 하시더라 55.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어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 둘째,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가롯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던 열두 제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마 10:1)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가 있는 자리는 예수님의 반대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칼과 망치를 가지고 있던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가롯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반자가 되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자신의 의지가 하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택함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보고 쫓아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대편에서 있는 가롯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있을

곳은 그 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너와 함께 있을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를 친구로 인정하시며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떠나 세상의 것들과 같이 있을 때도 “친구여”라고 부르시며 돌아오시기를 바라십니다.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거나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셋째, 회복시키시는 부르심의 은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가롯 유다의 배신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배신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56절)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 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배반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친구라는 정체성은 없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죄를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에게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끝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배반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홀로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한 때는 배반자였을지라도,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형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가롯 유다와 같이 모든 책임은 스스로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간 제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과거의 연약함도, 부족함과 실패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선을 이루기 위한 귀한 재료가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친구로 삼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 참된 친구, 형제가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누리신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면에 이어서 ->

6선교구 다니엘기도회와 16교구(은마상가), 17교구(일원역), 18교구(을지대 정문)에서 노방 전도를 한다. 관계 전도로 계속 출석하는 새 가족들은 뮤지컬 티켓과 전도 우수속회 시상, 전도왕에게는 선물증정이 있고, 새신자 초청 가을소풍을 계획하고 있다.

7선교구 관계성 전도를 목표로 작은 예배공동체인 속회에 주목하고 있다. 전도대상자 이름을 적고 매일 기도하며 속회 예배에 초대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니엘기도회를 진행하며, 속회 전도운동의 목표를 복음을 접하는 것에 두고 교체하고 있다.

8선교구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이번 총력 전도를 위해 다니엘기도회로 기도의 힘을 모으고 있다. 22교구(교회 앞), 23교구(논현 시장), 24교구(양재천), 각 거점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

교회를 마음껏 자랑하고, 진정한 복음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9선교구 '한 영혼을 생명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다니엘기도회를 통한 구령의 열정을 높여 150명을 전도 목표로 삼고, 선교구 내 거점 전도를 하고 있다.

또 '포도나무 전도'로 관계전도 결실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총력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10선교구 연합기도회를 시작으로 트리니티 후 귀가 전도, 다니엘기도회를 하고 있다. 온라인 전도를 위한 SNS 계정 운영, <위기가 정 아동 돕기 캠페인>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미술인선교회와 협업하여 새가족 선물도 준비했다.

광림남교회 총력전도를 위해 '유양겔리온 페스티벌'과 교구별 연합기도회, 새가족 초청 전교인 가을운동회를 준비했다. 전도 간증, 전도 찬양 등 매주 저녁예배 때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새가족들을 초청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상희 기자



#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증거

정운택 선교사, 전교인 전도 간증집회에서 말씀 전하



유명 영화배우에서 선교사로 변신한 정운택 선교사가 9월 30일(금) 저녁 8시, 전도의 달을 맞아 광림교회 본당에서 창세기 12장 1~2절을 주제로 간증집회를 가졌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이던 2015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2019년부터 선교사로 활동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운택 선교사는 광림교회가 위치한 신사동과의 인연으로 간증의 포문을 열었다.

신사동은 10여년 전 정 선교사의 주요 활동 무대이자 그가 2년 넘게 자영업에 해온 곳이 기도 하다. "여기가 제 생활환경이었어요. 이 동네에 뭐가 있는지 확히 아는데... 이번 간증집회를 위해 카페에서 설교준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카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 목사님들이 부담 느끼실까봐 일찍

도착해도 전화를 안해요. 그런데 준비를 해야하는데 카페가 안보여서 하는 수 없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강사 대기실을 주시는데... 와, 정말 좋은 거예요.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설교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주님이 내 눈을 가리셨구나. 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가장 좋은 걸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가 신사동에서 자영업을 하던 당시 정 선교사의 치킨집으로 죽어가던 부근 상권이 살아났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세상의 유한함과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제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블록이 살아났

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러 계시는 곳, 살고 있는 곳, 또는 사업장과 일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것 아니고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늘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며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배우의 길을 내려놓고 기적처럼 찾아온 뮤지컬, 그 속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끄심에 대한 간증이 이어졌다.

몽골과 중앙아시아, 민민촌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목회자들과 '우리는 복지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한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박아버리면 그 곳에 예수 생명의 말씀이 삽니다."

정운택 선교사는 2001년 영화 친구, 그 후 두 사부일체 시리즈 등으로 얼굴을 알렸던 영화 배우 출신으로 2002년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신인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광림교회에서의 2차 간증집회는 10월 16일(주일) 저녁 7시 30분 광림 남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위선미 기자

## 포토 뉴스



남선교회총연합회 월례회  
9월 25일 사회봉사관 세미나실에서  
10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여선교회총연합회 월례회  
10월 2일 본당 대예배실에서  
10월 월례회가 있었다.



실업인선교회 추계영성수련회  
10월 7~8일까지 안동에서  
영성수련회를 가졌다.

## 담임목사 동정



- 9/26~10/1 서울남회회감리사 연수
  - 10/4 트리니티성서대학원
  - 10/5 수요치유의신학
  - 10/6 국민미션포럼
- 감리교이단대책위원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http://www.klmc.church)

# 2022년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 개최

10월 15일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가 10월 15일(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개최된다.

산상기도회는 남선교회총연합회가 주관하여 일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 광림수도원에서 열렸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며 김정석 담임목사가 귀한 말씀을 전한다.

김정석 목사는 “예전에는 기도하기 위해 광림수도원으로 올라갔는데 올해까지는 넓은 장소인 교회 본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한다. 모두 참석하여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각 가정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직도 예배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통일성취기도회’는 올해도 개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인 팬데믹이 하나 둘 회복되는 가운데 이번에 산상기도회를 열게 되었고, 또 연말이면 전교인 성가경연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인 박기연 장로는 “광림수도원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여 그곳에 가서 산상기도회를 가지려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지만 본당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동안 못하였던 기

도회를 하는 만큼 이제 예배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하였다.

아울러 “남선교회에서는 가장 역점 사업으로 젊은 층인 스테반선교회의 예배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스테반 가정들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자녀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 코로나 이후 직장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막아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다. 일전에 스테반회장 가족들이 전체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함께 어울리면서 교회 출석에 대한 동기부여를 많이 갖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와 바울, 웨슬레선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할 예정이다. 개체 선교회가 부흥하면 남선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도 부흥하게 된다. 남선교회의 최종 목표는 광림교회의 부흥이다”라고 했다.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스테반가족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하며, 미가엘성가대 솔리스트인 정혜민, 김현봉 성도와 남성성가단이 특송을 할 예정이다.

광림남교회를 비롯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등 지교회 교인들도 동참하게 되며, 선교구별로 출석을 집계하여 많이 참석한 3개 선교구는 남선교회에서 따로 시상하고 모든 참석자들에게는 준비한 선물을 나눌 예정이다.

이득섭 기자



## 동탄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바자회

일시

10월 25일(화), 오전 9시~오후4시

장소

광림교회 밀레니엄공원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으로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29:11]

### 판매 품목

#### 사전 판매

10월 11일 / 16일 / 18일 / 23일 - 여선사무실

- |         |       |          |
|---------|-------|----------|
| · 애장품   | · 젓갈  | · 최신패션잡화 |
| · 건어물   | · 참기름 | · 티각태각   |
| · 다마리간장 | · 들기름 |          |

### 10월 25일 바자회 당일

- |        |         |        |
|--------|---------|--------|
| · 애장품  | · 다마리간장 | · 어포   |
| · 패션잡화 | · 밀반찬   | · 아나바다 |
| · 여성의류 | · 젓갈    | · 라자냐  |
| · 남성정장 | · 된장    | · 녹두전  |
| · 신발   | · 고추장   | · 비빔밥  |
| · 향초   | · 장아찌   | · 떡볶이  |
| · 건어물  | · 참기름   | · 컵과일  |
| · 티각태각 | · 들기름   | · 샌드위치 |

※문의: 02-545-9624(여선교회총연합회 사무실)



광림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

#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청년 공동체

## <광림교회 청년부 LBS 가을학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경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주어진 서신(書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을 계시하지는 않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는 올바르게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늘 인간의 한계성을 염두에 두고 겸손한 자세로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9월 17일(토)부터 11월 19일(토)까지, 10주간 LBS(LFC Bible School)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에서 LBS 찬양팀의 찬양과 강의, 소그룹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강의를 들은 뒤 참여자들은 매주 새롭게 읽(지)과 감동(정), 실천(의)의 조화를 이루어

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학기에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오해하기 쉬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적용해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서 적용할지를 배우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LBS에 참여하는 성원제 형제는 “LBS 시간이 늘 기대가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기본을 탄탄히 하는 채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말씀을 배워가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이미 알고 있던 복음 즉 단 하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에 경험한 은혜,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이 LBS 시간입니다. LBS는 그런 장소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을 탄탄하게 만드는 장소, 내게 주신 복음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장소, 그리고 복음을 전도할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성경의 원리를 공동체가 함께 깨닫고 묵상하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LBS 강의를 통해 청년들이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에 굳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청장년부 일과 영성 ‘기독교윤리’ 세미나 진행 중



### 청장년부 일과 영성 ‘기독교윤리’ 세미나

- 일 시: 9월 18일 ~ 11월 27일  
2, 4주차 주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B
- 대 상: 청장년2부(기혼)
- 문 의: 청장년2부(☎02-2056-5631)

전도사 시절,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종이 한 장을 나눠 주었습니다. 여행 목적을 적는 종이였습니다. 담당 목사님은 ‘관광’이라 적으라 말씀하셨고, 모두 똑같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관광은 거짓말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착한 거짓말은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목적, 과정 모두 옳아야 하니 거짓말은 하면 안 될까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은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를 암살하려 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계획에 옳았던 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기에 악인을 살해하는 건 옳은 일일까요? 살인 자체는 죄이기에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때로는 신앙이 융통성 없어 보일 때도 있고, 반대로 불분명한 기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9월부터 청장년 2부(기혼자 공동체)에서는 FWIA (Faith & Work Institute Asia, 이하 일과 영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FWIA는 일터에서의 여러 상황을 성경적으로 고찰

해보고자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광림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의 추천으로 3년 전부터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는 윤리적인가?’라는 큰 주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윤리’는 일반적인 도덕, 양심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는 분명한 기준에 근거한 인간의 올바른 행동, 생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 삼아 모든 행동들의 양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고 훈련해야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옳고 그름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기도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함께 공부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유용찬 목사(청장년부)

### 신앙 간증

####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

안녕하세요 청년 4교구에서 속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진호 속장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육군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육군 부사관을 지원할 때에 “하나님께 보내신 자리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변 동료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8년의 시간이 되돌아보니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청년 4교구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들과 국내 선교, 해외선교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당시 저의 담당 속장님을 통하여 “속장을 해보는게 어떻냐”는 권면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고 부족하지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속원들을 위해 기도 밖에 할 수 없었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속원들을 만나고 함께 순창으로 교육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과정을 통해 속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속장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3년의 시간과 교육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 주셨으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중요성과 맡겨주신 속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속장의 자리를 계속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를 속장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정진호 속장(청년부)

목회현장

예수를 바라보자



노정현 목사(서울대학병원)

‘웃음 10계명’이라고 회자되는 글을 보면 이렇다. 크게 웃고, 일어나자마자 웃고, 시간을 정해 놓고 웃고, 억지로라도 웃고, 마음까지 웃고, 함께 웃고,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고, 한번 웃고 또 웃고. 힘들 때는 더 웃어라. 이렇게 웃다보면 어려운 일들도 해결되고, 고통스럽던 시간도 지나가고, 슬픈일들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매사에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살라는 계명처럼 읽게 된다.

한번은 광림교회 주권사님의 요청으로 뇌종양수술을 하게 된 집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드리고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간병은 남편이 하시고 두분이 수술 전에 기도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시며, 두손을 잡고 부부와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수술이 잘 되어 퇴원하시고 후에 잠깐 만나게 되었는데, 두분의 간증은 이랬다.

늘 건강하게 지내다가 뇌종양 진단 후에 두개를 여는 수술을 하게 되니, 너무나 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목사님의 기도가 큰 위로가 되었고, 수술 시간에 남편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한다.

예수님의 모습은 평상시 집에 두고 보았던 예수님의 웃는 얼굴이었다. 남편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지 않고 그저 평안한 예수님의 모습에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걱정없이 수술이 잘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간증이었다. 간증을 듣는 시간 내내 내 맘에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웃는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다. 정말로 예수님은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계셨다.

사실 세상살이 중에 시련과 좌절된 일들로 힘들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의 위로하심이야말로 죄에 병들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은 것이다. 사회 정치 경제의 변동성이 심한 요즘 세상에 무엇을 보아야 할까. 예수님의 웃고 계시는 긍정적인 얼굴을 보아야 하겠다.

“민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2)

광림서교회

함께 모여 복음전파 사명 감당해요



광림서교회는 10월 총력전도의 달을 맞아 모이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월 첫째주일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대상자를 정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전도대상자 카드를 작성하였고, 함께 기도하며 10월 한 달 동안 전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준비되는 전도물품을 통해 전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전도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주변 아파트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토요일은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공원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이기에 힘쓰며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며,

10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일 전교인 성경골든벨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되는 시간과 넷째주 주일 저녁 찬양간증집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는 특별새벽기도를 통해 다음세대와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과 총력전도주일 당일 교회학교의 야외 레크레이션과 달란트잔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전도대상자를 초대하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총력전도의 달,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전파의 귀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모이며 복음 전하기에 힘쓰며 나아가 많은 열매를 맺는 광림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자!



10월 총력 전도의 달을 맞아 광림북교회 교우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움츠러들었지만, 이제는 기지개를 켜고 힘차게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멈췄던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북교회 담당 황영재 목사가 가정에서 첫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교구장 정환명 권사, 또 이안수 장로 가정에서 모여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또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자! 라는 구호

를 걸고 다시금 영혼 구원의 사명을 되새기며 발로 뛰고 있습니다. 관계전도를 통하여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은 물론 학교 앞 전도, 교회 앞 산책로 등 노방 전도를 통하여 전도의 훈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력주일에는 아동부 달란트 시장, 중고등부 분식 파티, 사랑의 헌혈, 윈데이 클래스(꽃꽂이 배우기)를 통하여 전도대상자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광림북교회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4선교구

부흥하는 11교구 마리아 선교회 멘토링 현장



11교구 마리아 선교회 회원들의 연합 예배 지난 9월 27일 저녁 8시, 멘토 역할로 마리아들을 섬기고 있는 송호연 권사의 집에는 뜨거운 찬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용식 목사(4선교구)와 11교구 마리아 선교회 회원, 가족들이 함께 한 연합 예배의 자리였다. 11교구는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주춤했던 마리아 선교회의 부흥을 위해 에스더의 송호연 권사를 멘토로 세웠다. 4개로 구성된 마리아 선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하여 선을 이

를 수 있도록 멘토-멘티 활동을 권면할 계획이다.

정용식 목사는 이날 예레미야 29장 11-13절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서두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절망 가운데

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선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다.

11교구 마리아 선교회 멘토로 힘쓰는 송호연 권사는 “마리아 멘토로서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언제든지 마리아 선교회를 위해 예배의 처소를 제공하겠다”는 든든한 약속을 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11-1 마리아 김호정 권사는 “4개의 선교회가 목사님을 모시고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더 좋은 선교회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예배 후 선교회 회원들은 멘토 송호연 권사와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기도 제목과 선교회 목표를 함께 나눴다. 선교회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멘토-멘티 관계가 지속돼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를 11교구 마리아 선교회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한혜선 기자

# 광림 도서관 운영 안내 및 사용 방법

## 평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5층에는 성도들의 이용 공간인 광림 도서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 넓고 쾌적한 이곳에는 기독교 서적뿐 아니라 신간 도서, 소설, 어린이 문학, 음악 사전을 비롯한 고사전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열람 및 대여를 할 수 있다.

광림 도서관은 교인과 목회자 이외에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7시, 주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서의 대여 기간은 2주일이며, 신간은 1주일만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 도서 반납은 도서관 운영시

간에 직접 반납하거나 도서관 앞 반납 통에 넣으면 된다. 광림 도서관은 매달 10권의 신간을 구매하고 있으며, 신간 도서는 도서관과 사회봉사관 엘리베이터 내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림 도서관에는 독서실에서 볼 수 있는 1인용 책상뿐 아니라 소파와 대형 책상이 갖추어져 있어서 조용히 공부하고 싶거나 독서를 하고 싶은 학생과 성도들의 이용이 가능하다. 도서관 컴퓨터를 통해 도서관 내 도서 검색이 가능하며, 도서관 내에서 핸드폰 중

전 및 무료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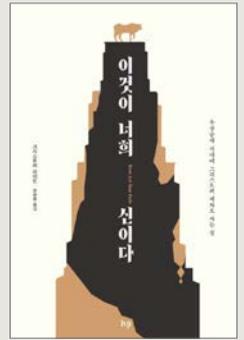
도서관 사서로 봉사하는 강현 권사는 “아직 성도들에게 도서관이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큼니다. 많은 교인이 도서관을 이용하여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읽지 않는 최신도서를 기증해 주신다면 도서관이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광림 도서관에 많은 성도가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더욱 발전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귀한 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며 봉사자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광림 도서관에서는 평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봉사 시간은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며 요일과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다. 관심 있는 성도는 목회 선교지원실(02-2056-5734)로 문의하면 된다. 또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고 싶은 성도는 도서관 운영시간에 직접 방문하거나 목회 선교지원실로 연락하면 된다.

박희윤 기자

###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 책으로 쌓는 교양



#### [이것이 너희 신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지음

성경 시대와 오늘날에 존재하는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우상숭배의 위험을 다루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를 보통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 문제를 단순히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우상숭배라는 주제는 성경적 유일신론에 대한 선교적 이야기의 기본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저자는 성경이 거짓신과 우상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본 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우상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우상숭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 [천국을 향한 기다림]

데인 오토랜드 지음

이 책은 하나님 나라(천국)를 소망하지 않는 현대인, 또한 언제까지 모를 '그날'이 아니라 '오늘'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역설하고, 이를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자유를 회복하는 길을 안내해준다. 특히 저자는 현재의 행복이라고 부르는 '자아중독', '자아중심성'에 매몰되어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된 현상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천국 소망에 대한 의미를 밝히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변영혜 기자

# 성가대 악보실 봉헌예배

### 음악위원회, 9월 25일 악보실 봉헌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다



모든 성가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성가대 악보실이 마련되었다. 성가대 악보실 봉헌예배가 9월 25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 지하 1층 나사렛성전 옆 악보실에서 있었다.

음악위원회 주관으로 미가엘 성가대, 나사렛 성가대, 갈릴리 성가대, 여선교회 성가대의 대장과 지휘자,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드려진 악보실 봉헌예배는 음악위원장인 장대진 장로의 사회로 시작하여 역대 음악위원장인 송영우 장로의 기도와 정준수 기획목사의 말씀으로 진행되었다.

정준수 목사는 열왕기하 22장 3-7절 본문으로 요시야 왕을 통해 세가지로 은혜를 나누었다.

“첫째, 성전의 쇠락함과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성전의 낙후되고 파손된 것을 수리했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

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보들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성가대와 악보실이 되어 우리 교회의 예배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율법책을 읽다가 옷을 찢으며 회개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악보들이 교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잘 활용하여 성가를 부르는 성가대원의 마음 속에 먼저 회심과 치유가 일어나며 그 성가를 듣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월절 행사를 하여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전하며 교회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을 이끄는 모든 성가대 대원과 대장, 지휘자, 음악위원장이 되기를 권면했다.

장대진 음악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이 악보실은 약 15,000권의 악보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악보실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있습니다. 악보실에 있는 악보들을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성가대에서 악보를 옮겨올 때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악보들과 복사본 악보들의 엄청난 분량을 폐기했습니다. 또한 악보실이 생겨서 각 성가대의 지휘자님들이 찬양곡을 편곡하고 연구하며 쓸 수 있는 쉽타가 있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했다.

음악위원회는 악보실이 만들어지기까지 배려해 준 교회와 악보실의 각종 비품(피아노, 이동식 악보장, 복사기, 컴퓨터, 제습기 등)들을 기증해주신 각 성가대와 현명효 장로, 최영민 권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18



##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마 11:11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예수의 활동지는 광야나 사막이 아닌 인간 사회였다. 세례 요한은 고행과 금욕의 인물이었지만, 예수는 여느 사람처럼, 사람들과 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었으나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회개가 아닌 '하나님 나라'였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와 비슷하며,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중점을 주었다. 또 세례요한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진노의 하나님이자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예수의 하나님은 죄인들조차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심판의 표징(表徵)으로 나타나지만, 예수에게는 죄인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의 표징으로 나타난다.

예수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가 아닌 하나님 나라였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 속에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과 심판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며 직접 보여주셨다. 세례 요한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 마지막 시간이라면, 예수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시간이었다.



▲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_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죄의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모든 유대인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며 죄 사함을 받게 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란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했다. 프란체스코 수카벨리의 작품

##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마 14:19-21

예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었다. 그 무렵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두 명씩 짝지어 보냈던 제자들이 돌아왔다. 예수와 제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벳새다로 갔다. 많은 사람이 알고 몰려들었고, 예수는 환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했다. 군중들은 전혀 흩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저녁때가 되자 설교를 마친 예수에게 제자들이 다가와 말했다. "주님, 날이 저물었으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서 먹게 하도록 마물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제자 빌립에게 말했다. "그들을 보낼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의 말을 들은 빌립은 기가 막혔고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백 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랍니다."

2백 데나리온은 큰돈이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 2백 데나리온은 반년 이상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아왔으면서도 아직 예수가 무슨 일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때 안드레가 광주리 하나를 들고 다가와 말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한 소년이 준비해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광주리를 받아든 예수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였다. "이것을 나눠 주어라."

제자들은 서둘러 군중들을 오십 명 단위로 앉게 한 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떡과 물

▲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_ 모여 있는 무리의 배고픔을 헤아린 예수 그리스도가 한 소년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서 5천 명을 먹이는 장면이다. 이 사건으로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이란 말이 나왔다.

암브로시우스 프랑켄의 작품

고기는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제자들은 계속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침내 5천 명이나 되는 어른들과 많은 아이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러자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언자야.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분이야. 어떤 병이든 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저분을 왕으로 세운다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거야."

군중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를 왕으로 추대할 분위기였다. 그러나 예수는 홀연히 그 자리를 떠났다. 예수가 말하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았다.

광림뉴스레터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